



황 의 중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국악작곡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국악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2회(1978)·제7회(1984) 대한민국 작곡상, 부산상공회의소예술대상(1990), KBS국악대상 작곡상(1996)을 수상했다.

작품으로 성악곡 〈승무〉, 관현악곡 〈만선〉, 가야금 독주곡 〈청산〉·〈은하수〉, 중주곡 〈강마을〉·〈갈대꽃〉, 가야금 합주곡 〈금의 전설〉·〈우륵의 춤〉, 교성곡 〈수로부인〉·〈처용〉·〈풍야송〉, 총체극 〈무릉도원〉 등이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방송과 특강·연주회와 음반출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장의 음반과 네권의 악보집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 「황의중의 우리음악 이야기」를 냈다.

현재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다.

‘진솔함’과 ‘편안함’이란 두 단어로 그의 음악을 요약하고 싶다. 그가 선택한 시어(詩語)들이 그러하며, 더구나 그가 시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음악언어들이 더욱 그러하다. (윤중강)

황의중의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자가 전통음악의 가장 든든한 기반중의 하나인 ‘여백 정신’에 발을 디디고 그 창작세계를 일구어 나가고 있음을 알아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송혜진)

황의중의 치유음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황의중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펼치는 새로운 선율은 친숙하면서도 진부하지 않고 새로우면서도 생경하지 않은 음악세계를 펼쳐보인다.